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067-08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경북도정

2006 가을호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www.gb.go.kr
Gyeongangtrub-do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3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도정구호 · 목표 선정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민선 4기의 도정 방향이 될 도정구호로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도정구호를 뒷받침하는 도정목표로는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확정하여 “경제 활성화로 부자경북, 문화·복지 향상으로 행복경북, 세계화로 일류경북, 미래의 희망경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9월 11일 도청 앞마당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구호 현판식을 개최, 민선 4기 도정구호의 의미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고,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일하고 살아 움직이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	제29대 김관용 도지사 취임 • “미래 경북의 100년을 설계하는 도지사가 될 것”
4	김관용 도지사에게 듣는다 - 민선4기 경북도정의 청사진 • 도민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살맛나는 ‘부자경북’ 건설
6	첫 지역 순방으로 울릉도 · 독도 방문 • 울릉도 · 독도 신구상 밝혀
8	민선4기 통상외교 본격 시작 • 경상북도 대표단, 프랑스 및 폴란드 방문
12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로 초대합니다 • 힘차게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
16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 천년 신라, 캄보디아 양코르와트와 만나다
18	경상북도 2006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 “맑음”
19	2006 경북 Star Venture 기업 선정
20	도정 이모저모 • “살맛나는 경북, 함께 만들어 갑시다!” • 경북 · 대구 공동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 발로 뛰는 세일즈 도정!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일행 경상북도 방문 • 민선 4기 출범 후 첫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 개최
25	건강이야기 - 환절기 불청객, 감기
26	알아봅시다
28	도정단신
30	가 불안한 곳 - 동해안 달맞이 영덕 야간산행
32	경북의 맛 - 경상도식 고디탕
34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6 가을호(통권368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김태웅

발행일 : 2006년 10월 11일 / 인쇄처 : 홍익출판인쇄사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950-3058, 2031 FAX: 956-4926



“미래 경북의 100년을 설계하는 도지사가 될 것”



‘웅도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제29대 김관용 도지사가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7월 3일 도청 앞마당에서 유림대표, 환경미화원, 소년소녀 가장, 소방관, 유아원생, 새마을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도민대표들과 도내 기관단체장, 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면서도 내실있게 진행되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주신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경북발전의 역사적인 도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땅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낀 도민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미래 경북의 100년을 설계하는 도지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낙동강 개진제 개수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으로 첫 업무 시작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공식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7월 1일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도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를 전격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수해취약지역인 낙동강 하류의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개진제 개수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4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도민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살맛나는 ‘부자경북’ 건설

민선 4기 경상북도를 이끌어갈 제29대 김관용 도지사가 취임했다.

300만 도민들과 함께 하는 ‘경북호’의 새로운 선장으로 취임한 김관용 도지사에게

민선4기 경북도정의 방향을 들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경상북도지사라는 자랑스럽고 영광된 자리를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경북을 다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세우고, 옹도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라는 요구로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경북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도민들의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낀 바 있습니다. 움츠렸던 도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살맛나는 경북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도지사’를 표방하셨는데

경북의 경제문제는 정말 절박합니다. 저는 먹고 사는 걱정, 자식 공부시키는 걱정 없는 경북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경제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도정운영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 중심의 도정, 즉 경제를 살리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조직, 일하는 방식 등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경제과학진흥본부와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며, 외부 경제전문가를 대폭 영입하는 등 경제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도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또한 임기 중에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해 노는 사람이 없는 경북을 만들고, 또한 외자를 유치하고, 1조원 규모의 경북투자펀드를 조성해 경제파이를 키우는 한편, 권역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골고루 잘 사는 경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북도의 정주여건과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개선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방폐장 등 주요 국책사업과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 동해안 해양삼각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한편 R&D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구조의 첨단화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이전을 공약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도청이전 과제가 남아있는 곳은 경북 밖에 없습니다. 도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도청 이전의 원칙은 첫째, 갈등 최소화와 도민의 자긍심 및 일체감 고취, 둘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후보지 평가, 셋째 도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칙 아래 12월 말까지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6월까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이 되어도 대구시와의 경제통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또한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분야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새경북 발전 구상’으로 구체화 한 9개 분야 40대 시책의 내용 중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요한 과제로 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농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지역개발, 노인·여성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농업과 선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동해의 청정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동해안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또한 동서 6축과 남북 5축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7번국도 확장공사의 조기완공, 동해중부선의 조기개설, 포항 일만 신항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해 경북을 환동해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도내 11개 시·군에 올해부터 5년간 367억원을 지원해 90~130병상 수준의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저출산 예방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슬라이딩제도 도입,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화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백두대간 생태자원 보전 및 그린 네트워크화 사업 등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마디

도민 여러분, 저와 함께 영광스러운 경북, 자랑스러운 경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뚝뚝 뭉친다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 사막에도 희망이 있듯이 300만 도민 여러분들이 있어 경북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중중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쓰는 장엄한 대열에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언제나 제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300만 도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울릉도 · 독도 신구상 밝혀

독도주민 생활편의와 정주기반 조성 위해 지속 투자



김관용 도지사는 8월 24, 25일 양일간 취임 이후 첫 지역 순방지로 울릉군과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지방외교시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자문대사 임용’, ‘동해 해양개발전략 추진을 위한 해양정책과 신설’, ‘독도 주민 생활정주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취임 첫 순방지인 울릉군과 독도에 대한 신구상을 밝히고 우리 땅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 · 외에 천명하였다.

8월 24일 오후 울릉도에 도착한 김관용 도지사는 울릉군청을 방문해 정윤열 울릉군수로부터 군정현황과 지역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울릉군민회관에서 개최한 「독도 수호를 위한 울릉도 발전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울릉군 방문에 이어 8월 25일 독도를 방문한 김관용 도지사는 어민숙소가 있는 서도로 건너가, 그 동안 어려운 생활여건에서도 우리 땅 독도를 의연하게 지키고 있는 김성도씨 부부를 격려하고, 김성도씨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문패와 독도 우편번호와 태극기가 새겨진 우편함을 달아주고, 이들이 숙소에 게양할 태극기와 경상북도기도 선물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서도)주민의 생활편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약 36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숙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서도 주민식수원 공급을 위해 물골과 어업인 숙소간 상수도 연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서도 주민 어업용 선박 인양시 안전 확보를



| 독도주민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 문패 기증 |

위해 선가장 입구 확장과 암초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서도 지역의 노후된 콘크리트 계단을 친환경적인 목재계단으로 정비하는 한편, ▲울릉도와 독도 주변 어업지도와 정주민 활동을 위해 ‘독도관리선’도 신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독도주민의 생활편의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으로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며 개발하는데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독도 수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라는 큰 틀에서 한·일 두 나라가 화해와 평화, 교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지방의 외교역량을 키워 독도 문제 등에 대처해나가기 위해 1~2급 상당의 ‘국제자문대사’를 임용하는 등 지방 외교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으로 「통일·해양시대를 대비한 동해 해양종합개발계획 수립」, 「심층수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해양 바이오산업과 해양자원 개발」과 「울진·울릉 ‘해양과학연구단지 및 연구기지 조성」,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울릉도 특별법 제정 추진」, 「울릉·독도를 연계한 관련 프로젝트」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울릉 사동항 방파제공사현장 점검 |

경상북도 대표단, 프랑스 및 폴란드 방문



| 제5차 경상북도해외자문관협의회 총회 |

김관용 도지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9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폴란드를 방문, 경상북도해외자문관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도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유럽시장개척단 활동을 격려했다.

첫 방문지인 프랑스에서는 9월 4일 주불 한국대사, KOTRA 파리무역관장,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장 등 재외공관장을 만나 경상북도의 통상 및 국제교류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둘째 날인 9월 5일에는 지난해 개소한 경상북도 유럽사무소(프랑스 알자스주 뮐루즈시 소재)를 시찰하고, 사무소현황을 청취한 후 현지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프랑스 알자스주의 아드리앵 켈러 주지사, 장 뢰 하이제 국회의원, 장 시몽 개발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 도-주간의 교류협력 및 투자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담했다.



| 주프랑스 재외공관장들과 환담 |

이어 9월 6일에는 알자스주 뮐루즈에서 열린 제5차 경상북도해외자문관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해외 자문관들을 격려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투자통상 등 경상북도 국제통상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제87회 김천 전국체육대회」와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행사와 내년에 개최예정인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경북방문의 해」 행사에 자문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교포와 외국인들이 경상북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유럽사무소

지난해 6월 개설한 경상북도유럽사무소는 자매 결연관계인 프랑스 알자스주정부에서 우호교류 협력 차원에서 사무소를 제공하고, 경북도에서는 현지 교민기업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등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무소내에 기업홍보 및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조사 및 바이어 D/B 구축, 유럽진출 유망기업체 모집 등 도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알자스주와 신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

총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알자스주정부를 방문, 아드리앵 젤러 주지사를 예방하여 경상북도해외자문관 협의회 총회 행사를 알자스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양 지역간 신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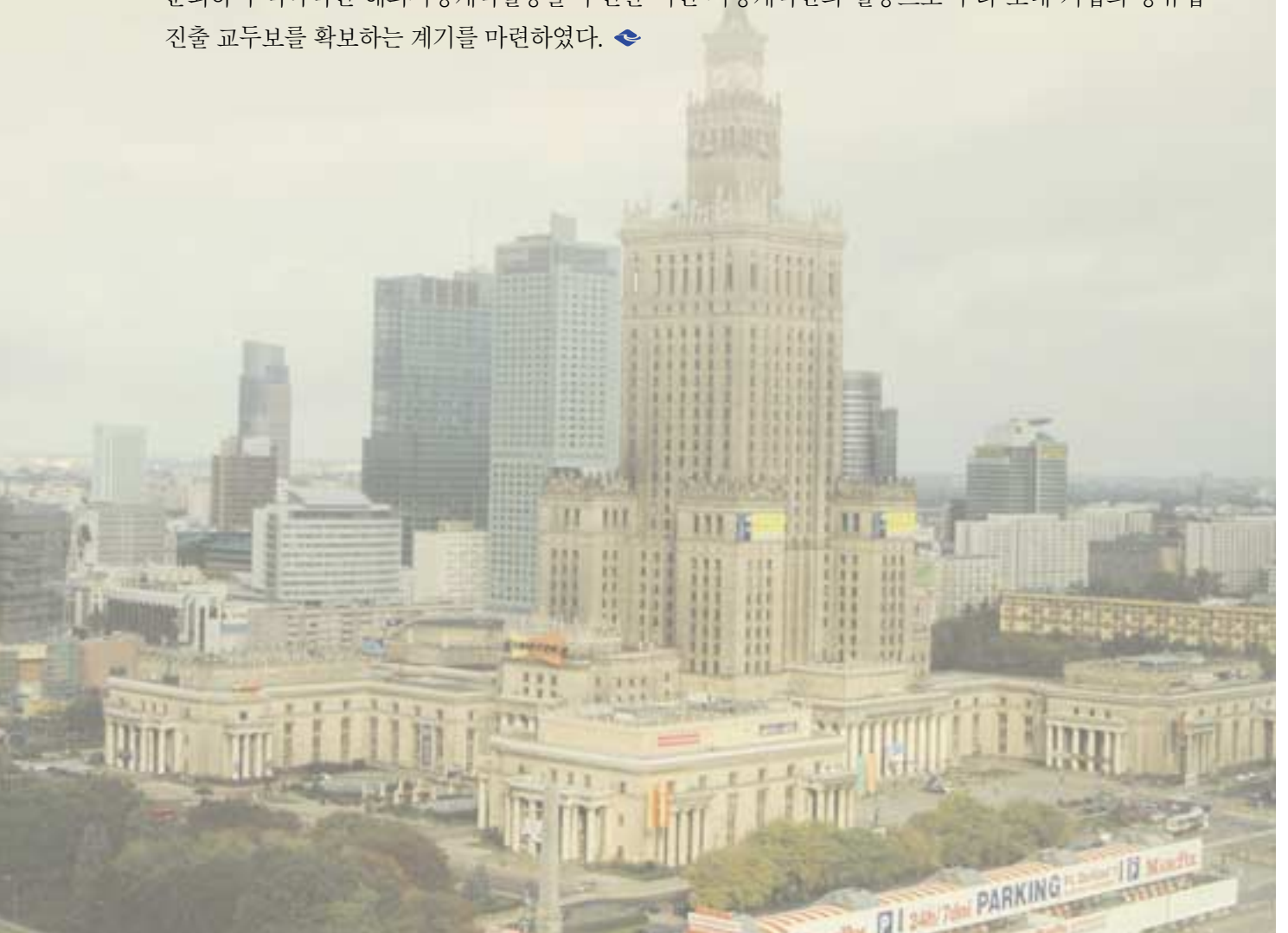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양 도·주지사는 지난 1999년 4월 27일 체결한 자매결연협정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양 도·주간의 우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 문화, 농업, 학술 등 분야에서 동반자관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상호투자, 경제교류, 과학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9월 8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종합상담장을 방문하여 해외시장개척활동 중인 경상북도 시장개척단(삼성정밀 등 11개 업체)을 격려하고 현지 바이어들에게 경북상품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현지진출 한국 기업인 대우전자 폴란드 공장을 방문하여 주재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으로 경상북도와 프랑스 알자스주와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재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한 이번 시장개척단의 활동으로 우리 도내 기업의 동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힘차게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이 함께 하는 잔치가 펼쳐집니다!

「힘차게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김천시를 비롯한 경북도 내 15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제87회 전국체전기획단은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치러지는 체전으로, “문화체전”, “화합체전”, “질서체전”, “경제체전”을 기본목표로 41개 종목에 15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 등 모두 25,0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이며, 화합의 대축전을 펼치는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상북도 300만 도민이 모두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개·폐회식 행사는 물론 선수촌 관리·운영과 체전개최 15개 시·군의 745개소 9,997개의 객실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완벽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의 건립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문화체전으로 만들어 체전이 시작되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김천종합운동장 주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 공연, 거리공연, 전시, 즉석이벤트,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제87회 전국체전으로
경상북도로 오세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

The 8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및 경기일정

종 목	종 별	10.17(화)	10.18(수)	10.19(목)	10.20(금)	10.21(토)	10.22(일)	10.23(월)	경 기 장
육 상	전 마			○	○	○	○		김천종합운동장
	하 프마라톤					○	○		김천시가지일원
수 영	경 영/수 구		○	○	○	○	○	○	김천시가지일원
	다 이 크			○	○	○	○		김천시가지일원
축 구	남 고	○	○		○		◆	◆	안동강변축구장 ◆안동시민운동장
	여 고	○	○	○		○	◆		안동고운동장 ◆안동시민운동장
	남 대	○	○	○	○	○		★	안동대축구장 ★김천종합운동장
	여 대	○	○	○	○	○		★	안동시민운동장 ★김천종합운동장
	해 외 동 포		○	○	○	○	○	◆	안동시민운동장 ◆안동시민운동장
야 구	고 등 반 부		○	○	○	○	○		(주)실트론축구장(구미)
테 니 스	전 전		○	○	○	○	○	○	포항야구장
	해 외 동 포		○	○	○	○	○	○	영남대학교야구장
농 구	고 등 반 부	○	○	○	○	○	○		김천종합운동장테니스장
배 구	남 고		○	○	○	○	○	○	문경시민정구장
	여 고		○	○	○	○	○	○	김천중앙고체육관
탁 해 력	남 대, 남 일			○	○	○	○	○	김천실내체육관
	전 전	○	○	○	○	○	○	○	코오롱체육관
사 이 클	벨 로 드 롱	○	○	○	○	○	○	○	인동초등학교체육관
	도 로 경 기			○	○				박정희체육관
복 심	고 등 반 부	○	○	○	○	○	○		경주실내체육관
	대, 일 반	○	○	○	○	○	○		안동체육관
레 슬 링	자 유 자 형 부	계체	○	○	계체	○	○	○	구미시민운동장
	전 전	○	○	○	○	○	○		충북음성벨로드롬
역 씨 유	전 전		○	○	○	○	○		김천시가지일원
	전 전		○	○	○	○	○		상주MTB경기장
공 양 사 승	전 전		○	○	○	○	○		영주 국민체육센터
	전 전		○	○	○	○	○		문경실내체육관
체 조	기 계 체 조			○	○			○	포항해양과학고 체육관
	리듬 체 조					○	○		의성학생체육관
하 기	남 고		○	○	○	○	○	○	포항흥해실내체육관
	여 고		○	○	○	○	○	○	구미전자공고체육관
펜 배 드 민 태 조	전 전		○	○	○	○	○		김천종합운동장공도장
	전 전		○	○	○	○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볼 링	전 전		○	○	○	○	○		포항실내사격장
	고 해 외 동 포	○	○	○	○	○	○		북용승마장(대전)
인라인롤러	전 전		○	○	○	○	○	○	포항실내체육관
	전 전		○	○	○	○	○		POSCO교육재단 체육관
근 대 5종	사 수				○			○	경주 안강하키장
	승 상					○	○	○	성주하키장
카 골 보 디	전 전	○	○	○	○	○	○		상주시민체육관
	전 전		○	○	○	○	○		김천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수 세	전 전		○	○	○	○	○		영천실내체육관
	전 전		○	○	○	○	○		포항형산강조정경기장
소 프 트 볼	전 전		○	○	○	○	○		포항시민볼링장
	전 전		○	○	○	○	○		경주한화콘도볼링장
철 인 3	전 전		○	○	○	○	○		구미중앙스포츠클럽
	전 전		○	○	○	○	○		김천인라인롤러경기장
스 퀴 시	전 전		○	○	○	○	○		후포요트경기장
	전 전		○	○	○	○	○		경북체고배구장
카 골 보 디	전 전		○	○	○	○	○		경북체고사격장
	전 전		○	○	○	○	○		경북체고수영장
수 세	전 전		○	○	○	○	○		경산남천둔치
	전 전		○	○	○	○	○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소 프 트 볼	전 전		○	○	○	○	○		경주하곡저수지
	전 전		○	○	○	○	○		파미힐스트리클럽
철 인 3	전 전		○	○	○	○	○		경산시민회관
	전 전		○	○	○	○	○		영주실내체육관
스 퀴 시	전 전		○	○	○	○	○		영천종합스포츠클럽
	전 전		○	○	○	○	○		영천금호체육관
카 골 보 디	전 전		○	○	○	○	○		동락공원야구장
	전 전		○	○	○	○	○		망양해수욕장일원
수 세	전 전		○	○	○	○	○		포항스쿼시경기장
	전 전		○	○	○	○	○		

■ 사전경기

종 목	종 별	10.11(수)	10.12(목)	10.13(금)	10.14(토)	10.15(일)	10.16(월)	10.23(월)
사 격	화약총	○	○	○	○	○		충북종합사격장



제87회 전국체육대회

The 87th NATIONAL SPORTS FESTIVAL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현황 |

■ 41개종 63개 경기장

종 목	시 군	경 기 장 명	종 목	시 군	경 기 장 명		
육 상	김 천 시	김천종합운동장	궁 도	김 천 시	김천종합운동장궁도장		
		김천시가지 일원 (마라톤, 단축마라톤, 경보)	양 궁	예 천 군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수 영	김 천 시	김천실내수영장	사 격	충청북도	(화약총)충북종합사격장		
축 구	김 천 시	(결승)김천종합운동장		포 향 시	(공기총)포항실내사격장		
	안 동 시	(남고)강변축구장	승 마	대 전 시	북용승마장		
		(여고)안동고축구장	체 조	포 향 시	(기계)포항실내체육관		
		(대학)안동대축구장		포 향 시	(리듬)포스코교육재단체육관		
		(남일)시민운동장	하 키	경 주 시	(남고, 여일)안강운동장하키장		
		(여대, 일부)안동중축구장		성 주 군	(여고, 남일)성주하키장		
	구 미 시	(해외동포)(주)실트론축구장	펜 싱	상 주 시	상주시민체육관		
야 구	포 향 시	(고등)포항야구장	배드민턴	김 천 시	김천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경 산 시	(일반)영남대학교야구장	태 권 도	영 천 시	영천실내체육관		
테 니 스	김 천 시	김천종합운동장테니스장	조 정	포 향 시	형산강조정경기장		
정 구	문 경 시	문경시민정구장	볼 링	포 향 시	(일반)포항시민볼링장		
농 구	김 천 시	(고등)김천중앙고체육관		구 미 시	(해외동포)중앙스포츠볼링장		
		(일반)김천실내체육관		경 주 시	(고등)한화콘도볼링장		
배 구	구 미 시	(남대, 남일)박정희체육관	요 트	울 진 군	후포요트경기장		
		(남고)코오롱체육관	인라인롤러	김 천 시	인라인롤러경기장		
		(여고, 여일)인동초등학교체육관	골 프	칠 곡 군	파미힐스컨트리클럽		
탁 구	경 주 시	경주실내체육관	카 누	경 주 시	하곡저수지		
핸 드 볼	안 동 시	안동실내체육관	보디빌딩	경 산 시	경산시민회관		
력 비	구 미 시	구미시민운동장		영 주 시	영주실내체육관		
사 이 클	충청북도	(트랙)음성벨로드롬	세팍타크로	영 천 시	영천금호체육관		
	김 천 시	(도로경기)김천시가지일원	근 대 5 종	경 산 시	(펜싱)경북체고배구장		
	상 주 시	상주MTB경기장			(사격)경북체고사격장		
복 싱	영 주 시	(고등, 대, 일반)국민체육센터			(수영)경북체고수영장		
					(육상)경산 남천둔지		
레 슬 링	문 경 시	문경실내체육관		경 기 도	(승마)국군체육부대승마장		
역 도	포 향 시	해양과학고체육관	수 중	영 천 시	영천종합스포츠센터		
씨 림	의 성 군	의성학생체육관	소프트볼	구 미 시	동락공원야구장		
유 도	포 향 시	흥해실내체육관	철 인 3 종	울 진 군	망양해수욕장일원		
검 도	구 미 시	구미전자공고체육관	스 퀴 시	포 향 시	포항스퀴시경기장		

※ 중앙경기단체 및 개최지(우리도)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년 신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만나다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오래된 미래, 동양의 신비’를 주제로...

‘오래된 미래 : 동양의 신비 (Ancient Future : The Myths of The Orient)’를 주제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를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50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캄보디아 관방부 · 시엠립주 ·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 외교통상부가 후원한다.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은 인류의 오래된 미래를 투영하는 자연 친화적인 아시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물리적 개발로 훼손된 인위적 문명을 회복하고,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동양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오래된 미래 - 동양의 신비』를 주제로 선정했다.

크메르제국과 신라의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신비가 빚어낸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한 자리에 모아 조명하고, 전통과 첨단과 학을 접목시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유기적으로 아우르고, 과거와 미래의 소통을 시도함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생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한다.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의 행사 기본방향은 신라문





화와 크메르문명의 진수와 함께 독특한 동양문화와 다양한 세계문명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 한국의 이미지전과 캄보디아 문화전, 관람객들에게 현실감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문화에 대한 상상력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한국·캄보디아 특별공연과 세계공연예술축제, 첨단 디지털기법과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 요소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행사의 규범 제시할 3D 영상의 ‘위대한 크메르 제국’과 ‘천마의 꿈-화랑영웅 기파랑전’ 등 영상(FILM)과 이벤트로 코끼리 퍼레이드, 한·캄 민속마을, 한·캄 전통의상쇼, 크메르 고전무용 콘테스트 등이 펼쳐진다.

특히 조직위는 행사장을 물과 수목 등 현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볼거리·놀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가 완벽하게 갖춰진 축제의 장으로 꾸미는 등 한국과 캄보디아의 전통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는 수준 높은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앙코르-경주엑스포’ 개최 예정지 방문

한국-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차 캄보디아를 공식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7월 30일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 행사가 열릴 앙코르 유적군 일원의 공사현장을 방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엑스포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이에 앞서 오수동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7월 29일 캄보디아 시엠립주(州)에 있는 소피텔 앙코르호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 반기문 장관은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방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외자유치실적 “1억9천7백만 달러”

고용창출 효과 큰 제조업분야 비중이 90% 넘어

경상북도의 올해 상반기 외자유치 실적이 코트라 신고액 기준 1억9천7백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가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투자 신고된 기업은 일본 아사히글라스에서 구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에 6천3백만달러(전자부품 제조), 캐나다의 코스마인터내셔널이 영천 신영금속에 2천만달러(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구미의 한옥테크노글라스에 3천만달러(반도체), 호주의 존 코퍼레이션이 김천의 비에스바이오텍에 1천만달러(부동산), 독일의 지멘스가 경주의 초음파기술에 1천만 달러(의료기기제조) 등이다.

투자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5천3백만달러, 캐나다 2천만달러, 독일 1천만달러 순이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6%로 한옥테크노글라스, 아사히초자 등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의 투자 비중이 크며, 투자지역별로는 구미가 1억5천4백만달러, 영천 2천만달러, 경주 1천만달러 순으로 구미지역 투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또한 투자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 첨단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산업고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세가 관광 등 서비스업 비중이 70%, 제조업이 3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분야 비중이 90%가 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편, 대만의 정밀기계업체 S사와 일본 동경소재 전자재료 제조업체인 K가 경북지역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우파카(주), 한성프린텍(주), 지이티(주) 등 3개 업체

각종 지원자금 우선권, 기술연구지원, 마케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지원

경상북도는 도내 300여개 벤처기업 중 시·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관련 전문가들이 성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광우파카(주), 한성프린텍(주), 지이티(주) 등 3개 업체를 2006 경북 Star Venture 기업으로 선정, 9월 11일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우선권 부여, 각종 지원자금 우선지원, 각종 산·학·연 사업의 기술연구지원 및 알선과 벤처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우파카(주)

(대표이사 정태량)

산업용 윤활유의 개척자로서 각종 압연유, 유압유, 방청유, 절·연삭유, 유처리제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품질의 고급화를 선도, ISO 9001, ISO 14001 인증 취득, 열간압연유 특허 등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

한성프린텍(주)

(대표이사 이종철)

칼라프린터 현상기 PCB Board 설계 및 제조회사, ISO 9001, ISO 9002 인증 취득, ECO-PARTNER 인증 등 프린터분야의 독창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해외법인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벤처기업.

지이티(주)

(대표이사 김광석)

공장자동화 및 산업설비 제조업체, ISO 9001, ISO 14001 인증 취득, 로봇 장치 실용신안등록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부설연구소를 설립 매출액의 약 15%를 연구개발비로 투자, 미국, 멕시코 등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화기술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살맛나는 경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장·군수 초청 첫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7월 1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4기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내 23개 시장·군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시·군 및 시·군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생의 방법을 모색키로 하였으며, 대구시와의 경제통합, 대영남권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북도와 23개 시장·군수는 대수도론 견제 및 저지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제87회 전국체전과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최 준비, 혁신도시 및 경주방폐장 건설 등에 대해서도 시장·군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통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방안 모색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출범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의 경제통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제통합추진 MOU를 체결한 이후 현안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EXCO대구에서 7월 31일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16명과 민간추천위원 9명 등 추진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추진위 운영규정에 대한 협약체결과 모바일특구 지역유치 등

16개 공동추진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합의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경북·대구 공동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하기로 한 이후, 이번에 “경북·대구 공동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따른 양해각서”는 16개의 단위 사업 중에 최초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8월 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대구의 경제 통합을 위한 16개의 사업중 단위 사업인 “EXCO대구 확장사업”과 추후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사업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단기적이고 시기가 바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인 과제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토의

홍기화 KOTRA사장 경상북도 방문 경상북도-KOTRA, 통상·투자유치 등 협력관계 강화기로

김관용 도지사는 7월 27일 접견실에서 홍기화 KOTRA사장의 방문을 받고 KOTRA-경상북도간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로부터 많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홍기화 KOTRA사장은 경상북도가 그 동안 수출, 투자유치 등 통상지원분야에서 KOTRA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데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섬유패션, 자동차부품, 모바일 관련 산업 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 KOTRA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로 뛰는 세일즈 도정!

한나라당 및 해수부 · 외교부 · 문광부 방문, 현안사업 지원 요청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일 도청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8월 2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함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 경북 · 대구 공동건의 사업인 “모바일 특구 유치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수도론 대응”, “동남권 신공항 건설 지원”, “대구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 경제통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를 방문, 포항 영일만 신항 조기개발, 울릉 사동

항 2단계 개발사업,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건립, 체험형 해양과학관 건립, 독도 가상체험4D 영상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범정부 차원에서의 외교 지원대책 마련, 가야 문화권 개발, 경주 역사문화도시의 국책사업 추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국비 지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구미지점 존치” 성명서 발표 도내 기관 · 단체장 간담회 열려 대책위원회 구성

경상북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 구조개편에 따른 포항본부 및 구미지점의 폐쇄 논란과 관련하여 도 단위 기관 ·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은행 포항본부, 구미지점 존치를 위한 간담회를 8월 3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고, 도내 연구기관, 상공계, 금융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치 당위성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존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갖추고, 한국은행, 재정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건의 · 항의하는 한편, 지역 출신 재경위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국은행 포항본부, 구미지점 존치를 위한 시민결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일행 경상북도 방문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새마을운동 전수 요청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서문순기 부주장을 비롯한 주정부 관계자 5명이 8월 7일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새마을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하며, 새마을운동을 조선족자치주에 전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 브랜드를 문화상품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로 하고, 이철우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새마을회장단, 전문가 등 11명이 실무조사단을 구성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길림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 성(주)정부와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 협의한 후 중국 현지 농촌을 둘러보고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중국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 새마을 연수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경상북도, 일자리 만들기 대장정 시작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대학생 인턴사원 채용 주선



경상북도는 8월 1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문화재 보수 관련업체 대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보수사업장 대학생 인턴사원 채용 간담회」를 갖고, 도내 문화재보수 현장에 지역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보수공사 인턴사원제」는 도내 소재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을 전공한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는 대

학생들은 문화재 공사현장에서 공무·자재·시공·품질·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게 된다.

매년 경상북도에서 2~3백여건의 문화재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문화재에 관심있고 보수공사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인턴 대학생들에게는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문화재 보수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민선 4기 출범 후 첫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등록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민선 4기 출범 이후 전국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제15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 회장선임 및 대정부 건의 안건들을 검토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건의(안) 등 29건의 건의안건을 확정하였으며,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99년부터 격년·윤번제로 개최해 오던 한·일 지사회의는 독도문제와 총리 신

사참배 등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일행은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국무총리와 국회 상임위원장, 4대 정당대표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지방세) 확보조치를 병행 추진해 줄 것” 등 지방재정 관련 시·도 공동건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6차 총회 부산서 개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6차 부산총회가 9월 13, 14일 양일간 5개국 50개 자치단체 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 “동북아지역간 공동번영과 NEAR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개최하는「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홍보하고 아울러, 2007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경상북도 방문의 해」인 만큼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상북도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가 살아 숨쉬는 경상북도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절반은 손으로 전염... 비누로 자주 씻어야

감기와 다른 독감은 백신으로 80% 예방

낮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가을 날씨,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다. 그야말로 환절기이다. 이처럼 들쭉날쭉 변덕스런 날씨에는 ‘감기’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기 쉽다. 누구나 일년에 몇 번은 앓게 되는 지긋지긋한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감기는 날씨가 추워졌다고 걸리는 것이 아니다. 추위는 감기의 악화요인일 뿐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추워도 감기바이러스가 없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사람이 밀집한 밀폐된 공간에는 공기 중에 감기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감기의 절반가량은 손으로 전염되기 때문이다. 감기환자들의 콧물과 눈물, 침이 묻은 물건을 만진 뒤 무심코 자신의 코나 입에 접촉하면서 걸린다. 감기에 걸린 자녀의 코를 풀어준 뒤라면 비누로 손을 씻어야 안전하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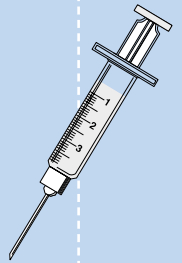
평소 잘 먹고 잘 쉬는 사람은 감기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쉽게 이겨낸다. 육류에 풍부한 단백질이나 비타민도 면역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미 감기에 걸린 사람이라면 물이 최고의 보약이다.

감기로 인한 열을 내리고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 배출을 돕는다. 감기에 걸리면 수시로 마시도록 한다. 담배는 단 한 모금이라도 감기에 좋지 않으므로 애연가라도 감기를 앓을 땐 금연하는 것이 좋다.

감기와 독감도 구분해줘야 한다. 감기는 2백여 가지의 감기유발 바이러스가 단독 혹은 한두 가지가 혼합되어 발생한다. 반면 독감은 A, B형 두 가지 인플루엔자가 주범이다. 독감백신을 맞는다고 감기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감기는 바이러스 종류가 많고, 변형이 잘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개인 위생관리를 청결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감기를 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경북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2006년 7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는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주요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의 제출로 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7월 24일부터 시행,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채석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 시험어업신청 등 3종으로,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실을 통하여 약식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민원처리부서에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해 주게 된다.

이번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시행으로 민원신청시 불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복잡한 서류를 한번에 준비해야 하는 민원인의 부담해소 등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인과 담당부서로부터 시행상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하여 점차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민원사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 총무과 053-950-3236)

경북도, 공공비축미곡 487만5천석 매입



경상북도는 9월 20일부터 공공비축미곡 487만5천석(2,437만5천가마/조곡40kg)을 산물벼 및 포대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올해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키로 하였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 까지 매입키로 하였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 결과가 나오는 20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담당부서 : 농산과 053-950-2273)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본부 발족



경상북도는 기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 지원본부」를 발족했다.

중소기업 종합 지원본부는 경제통상실장을 본부장으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애로사항 지원팀, 수출전담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업통상 지원팀, 기업의 투자상담, 부지물색, 행정처리 대행, 공장설립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지원팀 등 3개팀 16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은 누구든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에 접속·문의하면 빠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시책, 경제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전하고 있는 E-경북기업정보도우미(<http://www.gb.smb.go.kr>)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담당부서 : 기업노동과 053-950-2798)

행정혁신 체험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



행정혁신!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추진 해 온 행정혁신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체험 수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10월 20일까지 응모신청서와 함께 체험수기 또는 아이디어를 우편(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북도청 혁신분권담당관실)이나 E-mail (ksh1509@gb.go.kr)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행정혁신 체험수기 분야는 민원서비스, 갈등관리, 자원봉사 등 경북도와 각 시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증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하여 체험한 내용을 말하며, 행정혁신 아이디어 분야는 업무개선, 조직문화 발전, 고객서비스 향상, 정책홍보 등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말한다.

경상북도는 이번 체험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각 부문별(체험수기, 아이디어)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씩을 선정, 도지사 상장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 공모전에 추천하는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실 053-950-3916)

경상북도 연수 자매단체 외국공무원 독도 방문

경상북도는 국제교류원으로 파견 근무 중이거나 연수를 위해 방문 중인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소속 외국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울릉도·독도탐방을 실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설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농업용 시설 제외 건의

경상북도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규정이 농업유통시설,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까지 적용되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

경상북도는 8월 15일 제61주년 광복절을 맞아 김관용 도지사과 이상천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생존 애국지사, 유족,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문화체육회관에서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존 애국지사 14명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위로·격려하고, 올해 새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16명에 대하여 각각 훈·포장을 전수했다.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 위한 청렴실천다짐 결의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31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도 및 23개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을 위한 공무원 청렴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렴경북 실현하면 도민이 행복해 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청렴실천다짐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도 자연환경연수원 - 국립중앙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은 다양한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월 6일 조청원 국립중앙과학관장, 박재중 자연환경연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혁신과 발전적인 업무관계 설정을 위한 자연사관련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우수 도로 선정되어 9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7회 사회복지의 날」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을 통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2005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3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개최

“세계와 미래를 하나로! 함께하는 경북여성농업인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3회 경상북도여성농업인대회」가 김관용 도지사, 이상천 도의회 의장, 허기옥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 등 내빈과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 연합회회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 군위군 강변둔치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2006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2개 부문 수상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전국 축산관련단체가 주관하여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COEX에서 열린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는 총11개 업체의 우수 축산물브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돼지부문에서 의성마늘포크(의성축협)와 실리안 소백산쪽돈(소백산쪽돈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과 고품질부분상을 각각 수상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전국 최우수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 공동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및 개인정보 노출진단」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부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7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6년 행정기관 웹사이트 담당자 연찬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2005년 행정기관 최우수 홈페이지」라는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동경, 나고야, 오사카에서 투자유치활동 펼쳐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순회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현지 기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7월 7일 오사카에서 기업체대표, 관련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을 초청하여 경상북도의 전략산업인 IT, BT, 에너지, R&D 및 부품산업 현황과 투자환경,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도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9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고품질쌀 생산대책, 가축방역, 농업정보화추진,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도로 선정,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경북도, 「식자재 공급센터」설치키로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관련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대구·경북 지역 학교급식에 1일 2~4만 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식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성가에 따라 공급지역 및 대상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도내 우수한 농산물 유통의 안정화, 학교 급식재료의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중경직할시 농업담당공무원 새마을운동 연수 위해 방문

중국 중경직할시의 농업담당공무원 25명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일 동안 새마을운동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경상북도를 방문, 경운대학교 새마을국제대학에서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기본원리, 추진경험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군 신도리마을, 군위농협유통센터, 도 농업기술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성군 교촌리) 방문 등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익히고 돌아갔다. 

하늘에는 달이 뜨고,
바다에는 살빛 머물고...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청정 동해바다 그림 같은 풍경으로 이름난 영덕에서도 해맞이공원을 조성한 이곳 해안은 더더욱 아름답다. 이러한 풍경에 더해 거대한 바람개비 돌아가는 풍력발전단지가 보는 이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요즘 이 곳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 잔치가 열린다. 영덕군에서 마련한 테마여행 ‘동해안 달맞이 영덕 야간산행’이 그것이다. 올해 3월부터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에 가까운 토요일을 정해 ‘달맞이 야간 산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제법 알려져 찾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행은 창포초등학교에서 모여 코스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친 후 시작한다. 어느새 태양은 서산에 기울어 붉은 빛으로 쓰러지며 풍력발전기 거대한 바람개비를 붉게 물들인다. 초등학교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드디어 출발이다. 코스가 산행이라기보다 가벼운 산책이다.

그런데 야트막한 산을 오르다 어디선가 “우~웅웅” 밤공기를 가르며 느닷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다 보니 산 능선 위에 거대한 바람개비가 서 있다. 멀리서 보기에 멋있기만 하던 풍력발전기였다. 불안했던 마음이 껌연쩍어 슬쩍 웃음이 난다. 이처럼 달빛 아래에서 진행되는 산행은 오감을 기분 좋게 긴장시킨다.

풍력발전기들은 창포리 마을 뒷산에 남북 방향으로 2km에 걸쳐 24기가 들어서 있다.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의 거대한 구조물은 어촌 마을과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한 해 동안 영덕군민 전체가 사용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떠다닌다. “아~ 쥐불놀이구나!” 깡통에 불씨를 담아 철사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돌리는 모습이 어릴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다.

조금 더 걸다 보니 경쾌한 음악에 무용단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로 구성된 댄스팀도 멋진 춤솜씨를 보여주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공연과 하나가 된다. 경쾌한 리듬에 마음이 절로 흥겨워졌다.

이제부터는 하산길이다. 얼마 건지 않아 이번엔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지역의 통기타 동아리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캄캄한 바다에 환하게 불을 밝힌 오징어잡이 배와 풍력발전기를 비추는 각양각색의 조명이 통기타 반주의 노래와 너무나도 멋지게 어울렸다.

풍경에 취하고 멋진 공연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6.7km의 산행코스는 끝나 있었다.

출발했던 창포초등학교 앞 바닷가 물양장, 영덕의 청정 해산물 시식회가 준비돼 있었다. 이날의 메뉴는 콩치구이.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군침이 돌았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새하얀 콩치살을 안주로 가벼운 술자리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축제였다.

동해안 달맞이 야간 산행은 올해에는 11월 4일 한 차례만 남아 있다. 참가비는 따로 없다. 7번 국도를 따라가다 강구항으로 들어가 해변길을 따라 가다보면 창포초등학교를 만날 수 있다. 

< 문의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396 >



들깨, 부추를 **등복** 넣어 **담백**하며 **구수**하고 시원한 뒷맛



고디!

전국 어디에서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슬기(민물고둥)의 경상도식 이름이다.

경남에서는 ‘고동·고둥·고덩이’, 강원에서는 ‘골뱅이’라 하고, 충청지역에서는 ‘올갱이·올강·올뱅이’라 하거나 ‘베틀올갱이·베틀올강’이라고도 부른다. 호남 지역에서는 ‘다슬이·대사리·대수리·다실개’라 일컫는데,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둥’이라고도 하고, 전남에서는 ‘갯고동·갯다사리·갯물고둥·갯비트리·비트리’라고도 부른다. 제주에서는 ‘가메기보말·민물보말’이라고 한다.



신선한 야채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디무침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살려주고,
어른들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맑은 물에서 채취한 고디를 한번 삶아서 속살만 골라내고, 고디를 우려낸 국물에 고디 속살을 넉넉하게 담고 들깨와 부추를 듬뿍 넣어 끓여내면 담백하고 구수하면서도 뒷맛이 시원한 경상도식 고디탕이다. 더욱이 쫄깃쫄깃하면서도 오돌오돌 씹히는 고디 알갱이의 담백하고 짭짜래한 맛은 긴 여운을 남긴다.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술을 마신 다음날 쓰린 속을 달래주는 해장국으로도 제 격이다.

한편 신선한 야채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디무침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살려주고, 어른들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경상도에서와는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얼큰한 매운탕 같이 끓이기도 하고, 된장을 풀어 독특한 맛을 내는 곳도 있다고 하니 ‘경상도식 고디탕’과 비교해보면 좋겠다. 🍲





제8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 가져

의장에 이상천(포항) 의원, 부의장 방대선(성주), 안순덕(의성) 의원 각각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7월 7일 제8대 도의회 개원 첫 회기인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제8대 전반기 2년의 임기동안 경상북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이상천(포항) 의원을, 부의장으로 방대선(성주), 안순덕(의성)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이날 오후 김관용 도지사와 도승희 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어 7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관용 도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및 교육청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폐회했다. 

의 장 단



이상천 의장



방대선 부의장



안순덕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



위원장 김응규 의원



간사 박순범 의원



김만용 의원



김수용 의원



김영만 의원



박기진 의원



박병훈 의원



박순열 의원



박진현 의원



손진영 의원



이상태 의원



이종원 의원



장두욱 의원



최윤희 의원



한혜련 의원

[기획과학위원회]

■ 위원



위원장 이현준 의원



간사 박진현 의원



김수용 의원



나규택 의원



손덕임 의원



안순덕 의원



이상용 의원



이상태 의원



정경구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우경 의원



권영만 의원



김숙향 의원



김응규 의원



박순범 의원



간사 손진영 의원



윤영식 의원



윤창욱 의원



이시하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위원장 장대진 의원



김만용 의원



김영기 의원



백천봉 의원



송필각 의원



간사 박순열 의원



장세현 의원



전찬걸 의원



채옥주 의원

[농정위원회]

■위원



위원장 방유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영만 의원



남종식 의원



박노욱 의원



간사 이종원 의원



박병훈 의원



이용석 의원



조동만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 위원



위원장 이상호 의원



김종천 의원



방대선 의원



백영학 의원



이재철 의원



간사 최윤희 의원



장경식 의원



정무웅 의원



한혜련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위원



위원장 황상조 의원



고우현 의원



김기홍 의원



김영택 의원



박영화 의원



간사 박기진 의원



장길화 의원



장두욱 의원



장병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



위원장 송필각 의원



김기홍 의원



김동인 의원



김숙향 의원



김종천 의원



남종식 의원



백영학 의원



손덕임 의원



간사 윤영식 의원



윤창욱 의원



이상태 의원



이재철 의원



장경식 의원



장길화 의원



전찬걸 의원

건설소방·농정위원회, 태풍 피해지역 현지확인 실시



건설소방위원회는 8월 12일 태풍 「에위니아」로 큰 피해를 당한 고령군 쌍림면 기원리 도로유실 현장과, 성주군 성주읍 시가지의 주택침수 지역 및 초전면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규모와 복구계획 등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농정위원회에서는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태풍 「에위니아」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은 군위군 산성면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도의회 방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 21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문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이상천 의장과 방대선 부의장, 안순덕 부의장, 방유봉 농정위원장, 이종원 농정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당면 농업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천 의장은 현재 어려운 우리 농업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리 경북의 농업에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 개원 이후 첫 의원연수회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주 대명콘도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의원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의원연수회는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원들의 자치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방법, 주민대화와 여론수렴 방

법, 주민자치와 양성평등 등에 대한 특강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어 의원의 전문성 함양과 혁신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북도 조직개편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조정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 올해 말 본예산 심사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200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별 2006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15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9월 7일 본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상임위 명칭 등을 변경 조정하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은 기획과학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회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농정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 통상문화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는 기존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

민주노동당 대표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경상북도의회는 8월 31일 의장실에서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정치선전단의 전국 순회차 방문한 문성현 대표, 강병기 최고위원, 김숙향 도의원 등 민노당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상천 의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북 지역 농민의 피해가 엄청난 실정으로 민노당에서 국회차원에서 농업이 유리하게 협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문성현 대표는 경상북도의회가 농업인의 뜻을 대변하는 알찬 건의문을 채택한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어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체결지지위원장 등 방문



경상북도의회는 9월 7일 의장실에서 한·미 FTA 체결지지위원회의 전국 순회차 방문한 한덕수 위원장 등과 FTA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한우 사육두수 전국 1위이며, 사과생산량 전국1위 등 전 국민의 먹거리 1/4을 충당하고 있는 경북도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선보완 대책 후 FTA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쌀은 예외 품목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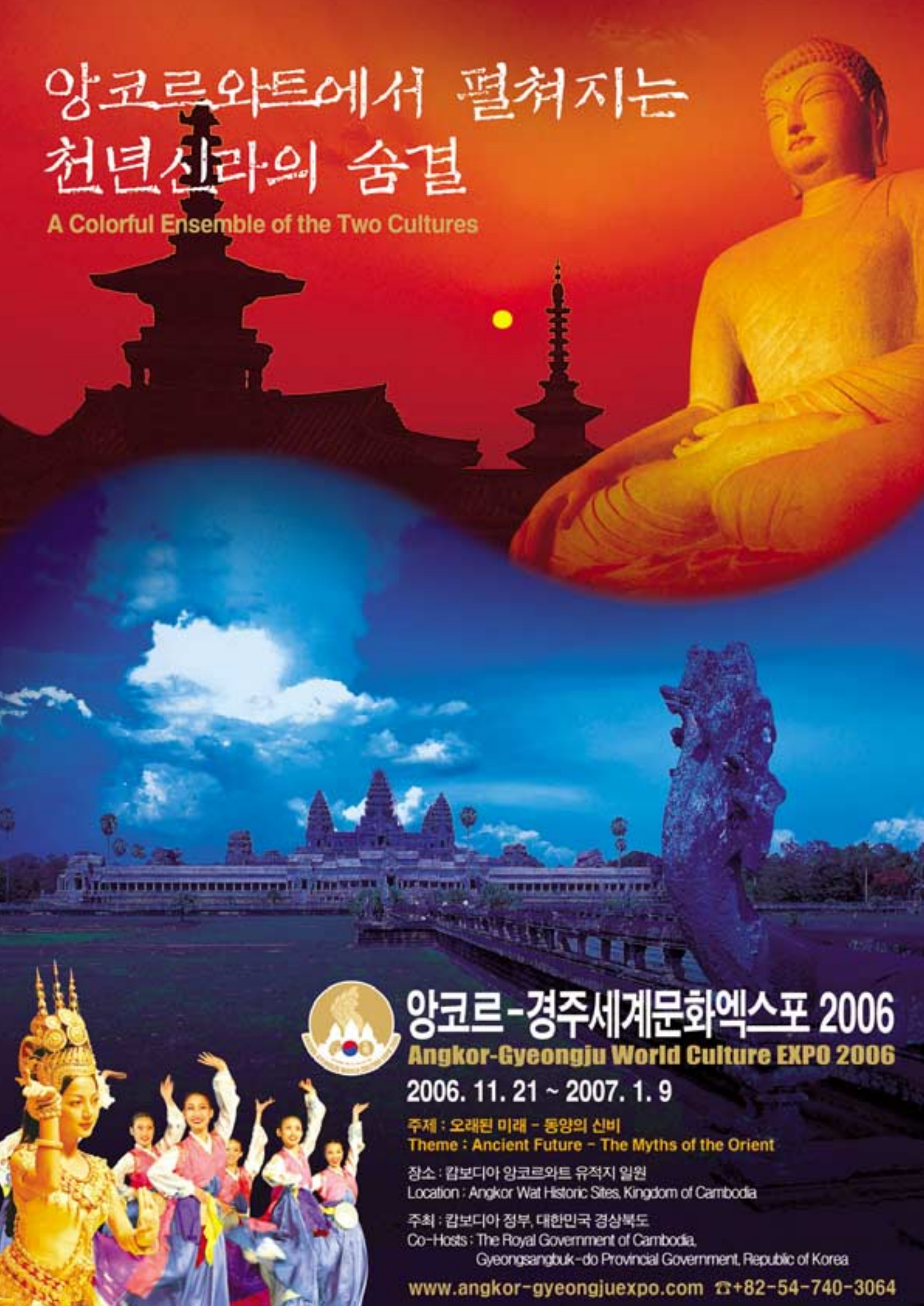
이상천 의장 등 한국은행총재 항의 방문

이상천 의장을 비롯한 이상효 경제문화위원장, 포항, 구미지역 도의원 등 10여명은 9월 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구미지점 존치와 관련하여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한국은행을 방문,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포항본부·구미지점 폐쇄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중소기업과 경상북도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포항본부와 구미지점을 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은행이 포항본부와 구미지점 폐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포항·구미는 물론 도내 기관단체 및 도민 전체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했다. 

앙코르와트에서 펼쳐지는 천년신라의 숨결

A Colorful Ensemble of the Two Cultures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Angkor-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06

2006. 11. 21 ~ 2007. 1. 9

주제 : 오래된 미래 - 동양의 신비

Theme : Ancient Future - The Myths of the Orient

장소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일원

Location : Angkor Wat Historic Sites, Kingdom of Cambodia

주최 : 캄보디아 정부, 대한민국 경상북도

Co-Hosts :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www.angkor-gyeongjuexpo.com ☎+82-54-740-3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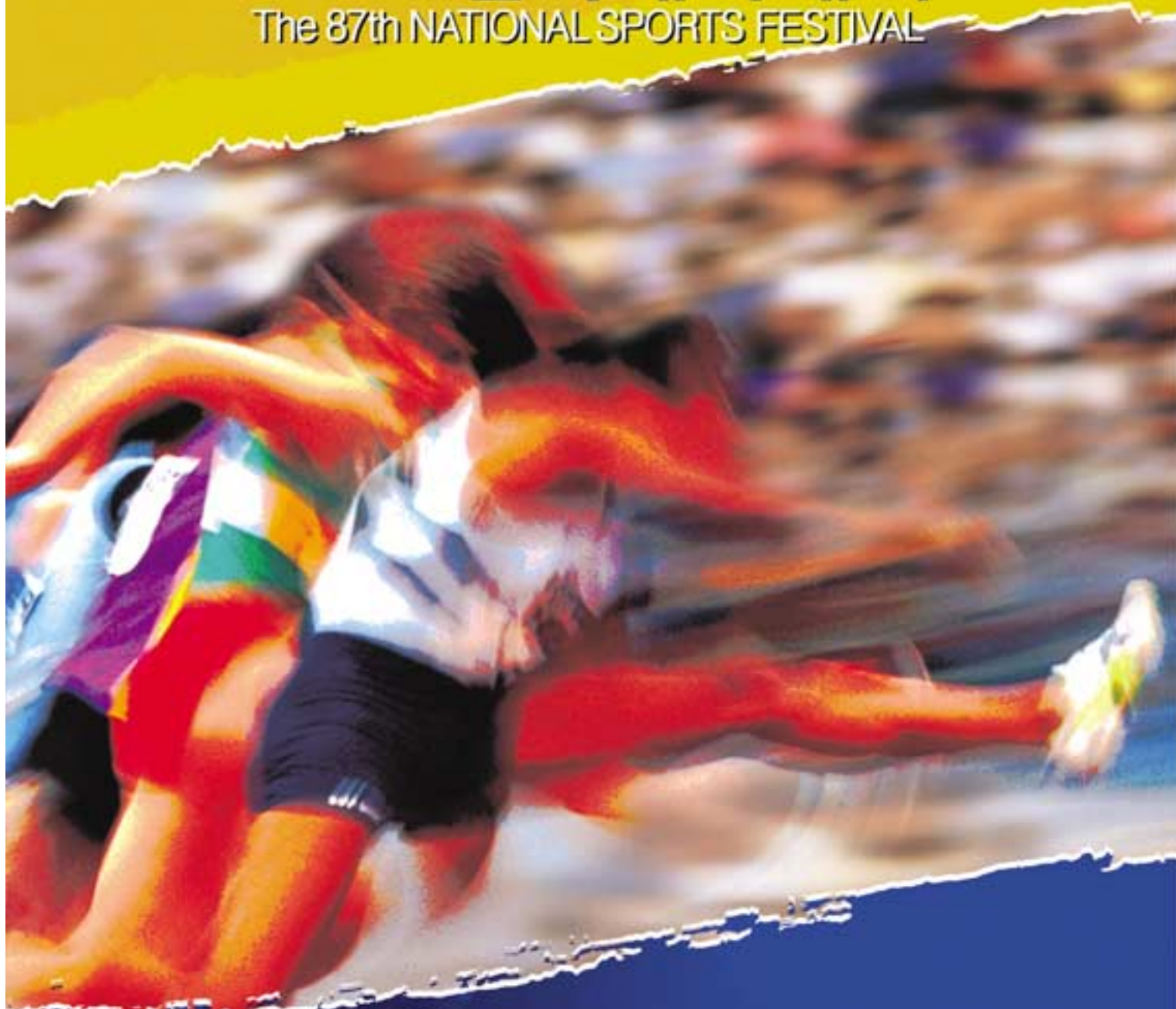


"힘차게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



제87회 전국체육대회

The 87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06.10.17(화)~10.23(월)

- 장소:경상북도 일원 (주개최지:김천시) • 주최:대한체육회 • 후원:문화관광부
- 주관: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체육회

